



시월보고서

라운아띠 6기 스리랑카팀



깜짝 퀴즈!
발의 주인을 맞춰보세요
정답은 마지막 페이지에...

차례



PAGE

- 3** 10월 달력
- 4** 네룸의 그림일기
- 5-7** 라온아띠, 동물원에 가다
- 8** 라온아띠, 절에 가다
- 9-12** 'End Poverty Day' in Lanka
- 13-15** 당신은 Elders' Home을 아십니까?
- 16** CLOCK DESIGN 벽시계 디자인 드디어 끝!
- 17-18** 랑카문화체험-장례식
- 19-20** 랑카문화체험-초경식
- 21-22** 고행 part2 : 고행.. 그리고 묵언수행
- 23-24** 랑카일보 10월 단신
- 25-26**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THIS IS SRI LANKA
- 27-29** 라온아띠 6기 보세요~ Happy Birthday!
- 30** 벽화예고
- 31-32** 아밀러의 시월 애(愛)세이
- 33-34** 나중에 보면 이걸 여기 왜 썼나 밤에 혼자 하이킹 찰
요즘 강가의 소소한 생각들
- 35** 뇌구조테스트 : 우리의 뇌 속에는 무슨 생각이?
- 36** 10월호 톨리니의 월별 보고서 작성 후기
- 37** 표지정답

깨알같은 10월 달력

라온아띠 스리랑카팀 6기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고행part 1: 금식체험	2
					. 시장 선거	
3	4 Small Trip	5	6	7	8 와루니아까 생일	9
물주기 *비오는 날은 쓰레기 줍고 피케팅만 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미티 미팅 Digarolla garde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벌드링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Youth Club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쇼커와 스몰 미팅 -현 체제 유지 결정 파손된 콘크리트링 제거 5기 벽화 보호용 검은막 설치 디고롤라 가든 배수로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수업 Children's Club 한국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별 보고서 마무리 Weekly report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watte지역 컴포스트빈 확인 Galle raod 울타리 용 대나무 120개 자르고 뽕족하게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zoological garden Mt.Latvina beach 성근이형 (ITS 단원)과의 만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둥이집 방문 - 첫 생리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쌍둥이집 방문 - 첫 생리 기념식 Galle trip 사진으로 YMCA 복도의 화이트보드 꾸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GS아버지장례식 탁구 Gym 이용 		
10	11-poya day	12	13	14	15한국어시험	16
물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미티 미팅 Digarolla garden Class -Activity 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K Zone 나들이 한국어 수업 보충 -깜박함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Youth Club with Darri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칼루다라 절 방문 with Darri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수업 -명상 첫 도입 Children's Club with Darrick & End Poverty 한국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kly report 작성 고행 끝난 기념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lle road 울타리 완성 월별보고서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드포버티 준비 -MDGs보드 노래 'imagine' 가사 판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드포버티준비 -MDGs보드 비닐 씌움. 게이트 75%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드포버티 준비 - 게이트 95%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드포버티 준비 - 게이트 완성 	
17 END POVERTY DAY	18	19	20	21	22 50일!!	23
물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미티 미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벌드링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나와 병원 -허벌드링크: 루완이 박수치기 처음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Elders home 울타리설치 -불개미와 사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수업 Children's Club 한국어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드민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kly report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Digarolla garden Class -End Poverty 수업 앤드포버티 길거리 설문 및 캠페인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샤디 집 방문 with 다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Municipal의 요구로 콘크리트링 높이 낮춤 -낮추면서 빠져 나온 흙 담기 영화보기 -마짱 Youth Club -End Pover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링 홈 담기 wall clock distribution 문의하러 동사무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쇼커 쌤과의 50일 만찬 -부침개, 바리부, 쏘야, 쌤불, 카덜러, 와디, 무루꾸, 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쇼커와 함께 콜롬보에서 성근이형 (ITS단원)과 친구를 만남. 	
24	25	26	27	28	29	30/31
물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미티 미팅 Digarolla garden Cla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기수 자료 정리 벽화 -스케치 콘크리트링 리페인팅용 폴리탄 만듦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휴일 -허벌드링크 휴무 Youth Club -쿠산 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화 -필러 흰 칠 및 비를 막을 폴리탄 설치. wall clock 디자인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권도수업 Children's Club 한국어수업 -구레 한국어시험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리어세미나 보조 지난 기수가 남겨놓은 과학키트 실험 -굳어서 사용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Weekly report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rpentry working place Tour 		<ul style="list-style-type: none"> Carpentry work -사포질, 페인트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lle road picket 타밀어 작업 		



네룸의 그림일기

날짜 : 2011.10.10. 월요일

날씨 : 폭우 후 갬

	내	일	은		포	야	데	이	!		쉬	는		날	이	다.		일	없	지	롱
ㅋ	ㅋ	ㅋ		오	늘	은		일	한	것	도		없	는	데		피	곤	하	다	.
월	요	병	인	가	?		아	침	에	는		미	친	듯	이		비	가		왔	다
여	기		와	서		가	장		많	이		내	린	것		같	다	.		오	늘
은		비	가	와	서		Gal	le	Ro	ad	에		물	을	주	지		않	았	다	.
집	으	로		노	트	북	을	가	지	러	간		틸	리	니	와		아	밀	러	
는		비	속	에		같	혀	한		참		후	에	나	Y	로		돌	아		
왔	다	.		역	시	나		또		지	봉	에	서		물	이		샀	다	고	한
다	;;;		점	심	시	간	이		다		되	어	서	야		비	가		그	쳤	다
지	난	주	에		이	어		대	나	무		울	타	리	를		만	들	었	다	.
틸	리	니	의		망	치	질		솜	씨	는		정	말		놀	라	웠	다	.	그
녀	의		빠	른		손	놀	림	에		순	식	간	에		일	이		끝	났	다
3	시	부	터		디	고	롤	라		수	업	을		했	다	.		오	늘	은	Ac
tiv	iy	D	ay	여	서		'즐	겁	게		춤	을		추	다	가		그	대	로	멈
취	라'	를		아	이	들	과		다	같	이		했	다	.	모	두		즐	거	워
다	.		아	이	들	을		집	으	로		돌	려	보	내	고		이	주	일	장
을		보	았	다	.		가	득		찬		냉	장	고	를		보	니		배	가
부	르	다	.		저	녁	으	로		하	퍼	를		먹	고		Co	m	mi	tte	e
ing	에		참	석	했	다	.		들	릴		듯		말		듯	한		싱	할	라
요	즈	엔		참		싱	할	라		공	부	가		하	기		싫	다		니	할
따	가		집	까	지		차	로		태	워	주	셨	다	.		아	이	스	크	림
사	주	셨	다	.		참	중	은		분	이	다	.	^^	ㅎ		내	일	은		포
야	데	이	니	간		늦	게	까	지		자	야	지	ㅋ	ㅋ	ㅋ	ㅋ	*			



라운아띠,

동물원에 가다.



10월 4일 화요일

아띠랑카 팀이 Dehiwala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 곳에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 친구들 중 Best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의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 그 충격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곰 님.
사람들로 하여금 '곰 탈' 로 인식하게 하여 자신에
게 쏟아지는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Fake의 달인이
아닌 달웅(達熊). 바위 사이에 사뿐히 머리를 얹어
놓으시고 단 잠에 빠져계시는 군요.



한때 사파리와 시베리아에서 한 가닥 하
신 분들
그 때의 위엄은 어디로 갔는지 다들 퍼
주무시고 계시는군요.



노장은 죽지 않았다.
난 아직 죽지 않았다규~

이 오동통한 동물은 누구일까요?
이 친구는 물개처럼 보이지만 물
개가 아닙니다. 재규어라고 하면
믿으시려나..... ㅎㅎ;;;;;; 식단 조
절이 시급해 보이네요--;



^%&^@\$%^&!#\$

가정 파탄의 원인 :
젊은 부부

버려진 자녀

한 젊은 부부의 심한 애
정행각으로 파탄이 난 침
팬지 가족도 볼 수 있었
습니다.

에흥.... 부모라는
것들이... 쫓쫓...

가정 파탄 침팬지 가족

시아버지



뭣 생명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강가 (민정). 기린과도 교감하고 있군요.

내 사랑을 받아줘 달랑~

장소를 옮겨서~ 프라이라이스와 치킨데빌(매운 닭 볶음 요리)과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고, 역시 이곳에서도 빈 그릇 운동을 시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변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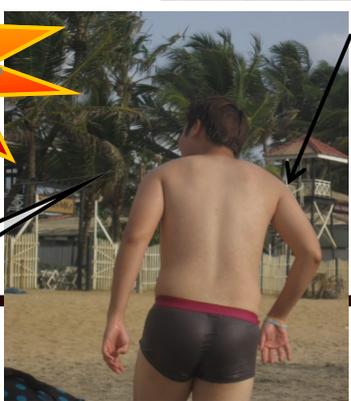
질질 바다로 끌려가는 강가(민정) 그리고 바로 뒤 이어지는 강가(민정)의 처절한 응징 (모래 던지는 품이 투포환 선수를 연상케 하는.....)



쇼커쇼커 아쇼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릴리니(가희)



난 K니깐.



아밀러(혁준), 25세.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라이언 스트롱(맥주 8.8%) 몇 병에 취해 갑자기 옷을 훌렁훌렁 벗기 시작! 반스 바람으로 해변을 질주하였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 The End - By NELUM(초록)

※ 모자이크처리를 본인이 거부하였음을 밝힙니다.



10월 13일 아띠 랑카팀이 Kalutara의 사찰에 갔습니다. 이 날은 처음 기차를 탄 날이라 모두들 들떠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냐 친구 데릭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해변을 따라 달리는 기차 안에서 보는 풍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라온아띠, 절에 가다.



스리랑카 사찰 안에서는 신발과 모자를 벗어야 합니다. 신성하고 경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부처님상 앞에서는 등을 보이면 안된답니다. 뜨겁게 달구진 돌 바닥을 맨발로 걸기란 참으로 괴롭습니다. 모두가 목도리도 마법이 되는 순간이었답니다.



이 곳에서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빕니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험, 건강, 부, 가족에 대한 소원을 빈답니다.



'End Poverty Day' in Lanka

'End Poverty' – Sri Lanka에서 'End Poverty'를 외치다.

10월 17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KB국민은행과 YMCA가 주관하는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6기 스리랑카 팀은 12일, 14일, 17일 총 3일간 스리랑카 모라투와 지역에서 빈곤퇴치 캠페인 활동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과 현재 세계가 앓고 있는 빈곤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의 대상과 형식이 다른 두 가지 캠페인이 진행됐다. 하나는 모라투와 YMCA 내의 정규 프로그램(Youth's club, Children's club, Digallora class)에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다른 하나는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과 참여형식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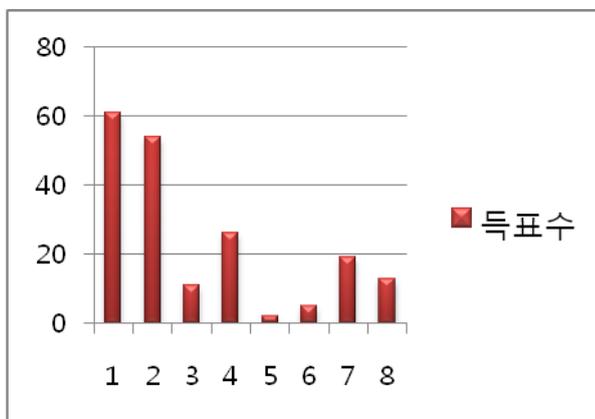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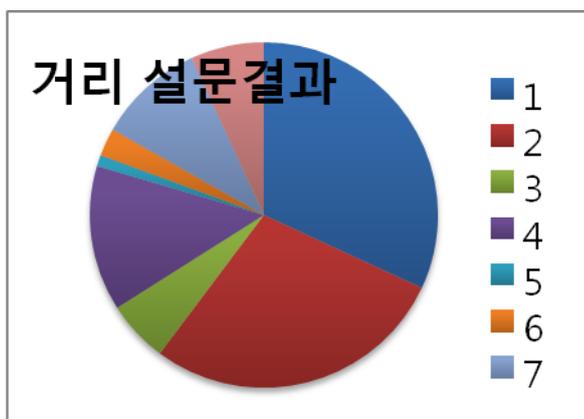
첫 번째 프로그램은 MDGs의 8가지 항목에 대해 대상자들에게 설명하고, 그 중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그 항목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4일 Children's club, 17일 Digallora class에서 총 71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7번(지속 가능한 환경확보)과 2번(보편적 초등교육 달성)항목을 그린 아이들이 가장 많았다.

12일에는 모라투와 YMCA의 Youth's Club member들에게 MDGs의 8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항목에 대해 라온아띠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John Lennon의 'Imagine'을 함께 배우고 부르는 것으로 캠페인이 마무리 됐다.

빈곤퇴치의 날이었던 10월 17일에는 오후 5시부터 한 시간 가량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기차역, 쇼핑몰에서 거리캠페인이 진행됐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문을 형상화한 구조물을 거리,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해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물은 문을 통과함으로써 빈곤퇴치에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조물 옆에서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은 사람들이 MDGs 8항목을 보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이었다.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기타연주와 노래를 준비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총 191명이 설문에 참여해주었으며, 1번(절대빈곤 및 기아퇴치)항목을 선택한 사람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번(보편적 초등교육 달성)항목으로 54명이 선택해주었다. 반면 5번(모성보건 증진)항목의 경우 단 2명만이 선택을 하여 가장 낮은 득표를 받았다.

(조사 일시 2011. 10. 17)

구분	Goal1	Goal2	Goal3	Goal4	Goal5	Goal6	Goal7	Goal8	합계
득표수	61	54	11	26	2	5	19	13	191



거리캠페인 후, 문을 형상화한 구조물에 Finish Line을 설치하고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라온아띠 6기 스리랑카 팀의 빈곤퇴치 캠페인이 마무리됐다. 퍼포먼스에는 Poverty를 End하자라는 의미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nd Poverty Day' in Lanka



Part 1. MDGs 게시판 만들기

(페인트 칠, 구성논의, 출력, 붙이기, 못 질, 코팅)



Part 2. End Poverty Gate 만들기

(논의, 문 골격 만들기, 비닐 씌우기, 고정시키기, 문구 써 넣기)

'End Poverty Day' in Lanka



What is most important to you?



'깜박'
 너희가 눈을 깜빡인 이 순간에도 한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고, 잡초로 국을 끓여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요?!

'End Poverty Day' in Lanka



2011. 10. 12.

Youth's club 친구들과 함께
MDGs에 대해 고민해보고,
Imagine 노래를 부른 날!

2011. 10. 14.

Children's club
아이들과 프로그램 진행!



2011. 10. 17.

Digarolla class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 진행!



2011. 10. 17.

Moratuwa 시내 버스 터미널,
기차역, 쇼핑몰을 돌며
길거리 캠페인 진행!



당신은 Elders' Home을 아십니까?



Elders' Home이란?

Elders' home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노인 정보다는 큰 곳이고, 실버타운보다는 작은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랑카팀이 찾아간 이 곳은 대략 20여분의 '할머님'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 종종 가

족들이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나가고 싶으실 때는 이곳의 차량지원을 받아 자유롭게 나가다 오실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할머님 한 분당 개인공간이 있고, 식사는 공동으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방, 실내발판 등 작은 수공예품도 만들어서 파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랑카팀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Elders' Home에서 가게되었나요?

어떤 일을 하기 앞서 무작정 그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왜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면 때로는 일에 임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능률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랑카팀은 코디인 아쇼커에 물어보았습니다! 왜 가는지!?!?

먼저, 이전기수도 Elders' home에 필요한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노인 분들과의 교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쇼커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화는 저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할 때, 공원에 가면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짧은 한국어로 그들과 대화까지는 아니어도 얘기를 들어드리면서 참 외로운 분들이구나 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공원에 가서 얘기를 듣고, 심지어 공원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간다면 꼭 다시 한번 찾아 뵙고 싶다고 합니다. 이전 기수부터 이어오던 활동이면서, 랑카 할머님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는 Elders' home으로 갔습니다!

당신은 Elders' Home을 아십니까?

Elders' Home에서 우리의 활동

노후된 울타리 사이로 짐승들이 침입해서, 그런 짐승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보강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이 슨 촘촘한 울타리의 녹 제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칠 그리고 설치까지 약 4일정도 방문을 해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량의 녹이 슨 촘촘한 울타리



설치할 촘촘한 울타리 녹 제거 작업



녹이 제거된 촘촘한 울타리 검은색 페인트로 뒤덮다!



당신은 Elders' Home을 아십니까?



페인트칠 완료 → 말리기!



이번 작업, 최대의 적! 불개미!
물리지 않은 단원 없음.



설치를 위한 잡초 제거!



불개미 퇴치 전문, 아쇼커



설치된 펜스 고정시키기



펜스 설치, 끝~

작은 바람..
우리 주변(예:크고 작은 공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손자, 손녀뻘되는 여러분이 말을 걸면 매몰차게 대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희 랑카팀은 이곳에서부터 실천하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_^

CLOCK DESIGN

벽시계 디자인 드디어 끝!

5번 이상의 대대적 수정을 바탕으로 드디어 벽시계 디자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벽시계의 목적은 공공기관이나 은행에도 재대로 된 벽시계가 없는 모라투와 지역의 여러 기관들에 벽시계를 기증하는데, 그 안에 라온아띠 활동을 포함한 모라투와 YMCA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 하는 사진과 연락처 등을 넣어서 광고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 킬리니의 디자인이 채택되고 강가의 현란한 포토샵 솜씨로 작업을 해두었지만, YMCA 로고를 나무기둥으로 해서 밑 속에 활동들이 있는 것으로 하자!는 저희의 의도는 결국 최종 디자인에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비록 모자란 실력이지만 모쪼록 모라투와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종 디자인

아무래도 보드멤버들은 YMCA 로고가 많이 들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장례식

현재 모라투와 YMCA의 GENERAL SECRETARY(이하 GS) 즉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쌤빳의 전 GS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기에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사연은 연로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전 GS의 집은 차로 10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였습니다. 저희가 당뇨병 환자분들을 위해 녹즙을 나누어 드리는 루나와 병원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쇼커가 중고 차를 뽑았기에 그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차에 8명이 끼여서 갔습니다. 아산에서 박진용 총무님 차를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와 루완은 트렁크에 탑승했습니다. 트렁크라기 보다는 짐칸 이어서 뒤를 구경하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좁은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집들이 모여있는 골목이 보였습니다. 장례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길거리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길을 따라 가다 모퉁이를 도니 바로 장례식을 하는 곳이 나왔습니다.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볼 수 있도록 안이 흰히 다 들어다 보이는 방 안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방 같아 보이면서도 장례식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공간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안에는 초와 죽은 사람의 종교를 대변하는 종교적 물건들이 놓여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하얀 보를 깔 침대 위에 사람이 한 명 누워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을 보면 많이 놀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미 깨끗하게 손질되고 양복을 입고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런지 특별히 거부감 같은 건 들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보자면 마네킹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건지는 몰라도 윗배가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으면 그럴까 라고도 생각했지만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아쇼커 배를 생각해보니 원래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콧구멍은 상당히 커져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체에 파리가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방 밖으로만 나가도 파리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시체에는 파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품의 냄새도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날것만 같은 특별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저희가 도착하니 이미 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어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조문객들은 흰옷을 갖추어 입고 있었고,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온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희 역시 그냥 평상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미리 말하기를 긴 바지만 입고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 7일장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족에 따라 종교에 따라 더 오래하기도 더 짧게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자유를 찾아 행복을 찾아 살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복종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끝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살아있는 순간만큼은 최대한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무대는 나만의 것이고 그 무대의 주인공 역시 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20대에, 청년의 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죽을 때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곡가 베르디는 여든 살에 그의 작곡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일컫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더욱 완벽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로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 역시 아흔다섯 살이라는 고령이 되도록 저술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다 오며 앞으로 좀 더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초경식



초경식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 칠드런스 클럽에는 두 명의 쌍둥이가 옵니다. 이름은 프라가피, 네 마사. 두 자매 중 프라가피가 이번에 초경을 하였다고 하여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누군가 초경을 하면 길게는 2주까지 집 밖을 나가지 않고 특정한 날에 집에서 특별한 세례모니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들의 전통을 현대에도 잘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부럽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라가피의 집 앞에는 큰 코코넛나무가 있었습니다. 주렁주렁 열린 코코넛을 보니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인상이 참 좋으셨습니다. 모라투와에서도 조금은 구석진 곳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 쪽에 사는 집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바닷가가 근처여서 그런지 바다모래가 집 마당에 있었습니다. 집은 마당도 있고 그럭저럭 넓은 편이었지만 잘 사는 부잣집이 아닌 스리랑카 일반 서민이 사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바닷가의 염분 때문이지 몰라도 부식된 곳도 있었고, 습기도 느껴졌습니다.

프라가피는 방에 있었습니다. 방에는 여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 루완과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여자 단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프라가피는 방에서 그냥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후인 금요일에 세례모니가 끝나면 초경식이 모두 끝난다고 했습니다. 초경으로 인해 며칠간 학교를 나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튿날 후인 금요일 늦은 오전 즈음 다시 프라가피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밝게 웃고 있는 프라가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어머니님께서 준비해 주신 간단한 다과를 먹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먹는 스리랑카 전통 과자와 과일이었습니다. 우유와 밥으로 만든 끼리 밥도 있었습니다. 한끼 식사로도 거뜬할 정도로 맛도 있고 양도 많았습니다. 넬리라는 초록색 음료수와 함께 맛있는 다과를 즐겼습니다. 저희는 초경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같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진을 제공해 준 프라가피 어머니께 감사 드립니다.



< 글 쓰는 순서 >

1. 고행.. 그리고 배고픔
- 2. 고행.. 그리고 묵언수행**
3. 고행.. 그리고 싱할라어
4. 고행.. 그리고 물 500ml
5. 고행.. 그리고 전기 없는 세상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단원들 (독서, 영화감상, 수필읽기, 잠) / 고행 중

2011년 10월 15일 16:00 ~ 2011년 10월 16일 16:00



밝아진 표정으로 느낌 공유 중! / 고행 종료



고행 종료 후 가진 외식 in SteamBoat Restaurant

고행 그 두 번째, 고행.. 그리고 묵언(默言)수행

정말 우연히도 시작하게 된 이 고행 프로그램, 어느덧 두 번째를 맞이했네요! 이번에는 스님들의 수행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묵언수행입니다. 영화 '달마야 놀자'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묵언수행을 하는 스님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겠죠? 참고로 이번 고행에 단원 개인의 종교적 의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 랑카 6기 팀에는 불교신자도 없습니다!

이번 고행을 마치고 나눈 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말은 필요하다'와 '그렇지 않다', 즉 말이라는 칼의 양면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고행에서는 8시가 되기를 애타게 기다렸다가 8시 땡과 동시에 음식들을 들이킨 반면, 이번에는 4시가 되면 봇물처럼 터져나올 줄 알았던 말이 4시가 되었음에도 정적이 흘렀답니다. 잠깐 동안의 어색한 기류가 흘렀다고나 할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울 줄 알았던 묵언수행, 역시 고행은 고행이었답니다!

말은 필요해!

일단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루했다는 단원! 그 누구도 개그를 치는 사람이 없었겠죠? 물론 몸 개그가 있지만.. 그래서인지 웃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말하고 했는데 눈도 안 마주친다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말이 없어지니 소통 자체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 썩은 토마토를 먹고, 평소 같으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테지만, 조용히 뱉으려 갔다던 단원! 다른 단원이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 라고 말도 못하고, 때마침 아픈 단원이 있었는데 '괜찮아?' 라는 말조차 못해서 말을 못하니 이렇게 표현에 제한이 되는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에 반하는 너무 생각이 많아지니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단원도 있었습니다.

말, 없어도 괜찮던데?

먼저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평화로웠다는 단원! 다투고 전쟁이 말로서 발생한다는 생각에, 말을 하지 않으면 덜 싸우고 화낼 일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고, 그것이 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 참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한 단원은 말을 통해서 발생한 갈등은 말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의 이번 고행의 목표였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던 것도 생각을 해보니 이해를 하게 되고, 너무 쉽게 말을 하고 있었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미뤄왔던 일들, 예전에는 이런 것도 하려고 했었지 라고 내면을 정리할 수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과 우리 랑카 6기 팀이 말 없이도 대충 살아갈 수준에 올랐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죠!!

랑카일보 10월 단신



아기 박쥐 난입 사건, 부상, 실종

- 10월 9일 밤 6시 30분경, 9월 월별보고서를 마무리 지을 때쯤, 지붕과 창문 사이 틈으로 작은 박쥐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이내 거실을 크게 한 바퀴 돌더니 강도5로 힘차게 돌고 있던 선풍기 날에 부딪히고 추락했다. 월별보고서로 떨어졌던 6기 랑카 팀원들은 일제히 박쥐에게로 달려갔다. 다행히 박쥐의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불행히도 오른쪽 날개에서 피가 나고 부러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물애호가 강가단원을 중심으로 소독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물 찬 제비 같은 움직임의 아미러 단원이 모기를 잡아 입 앞에 놓아줬지만, 아기 박쥐는 입맛이 없어서인지 도통 먹지를 못했다. 박쥐는 어두움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밖에다가 화장 솜까지 깔아서 베란다에 두었다. 모기를 먹지 않아, 수박껍질도 함께 준비해주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아기 박쥐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라며.

와루니 아파 축 생신

-10월 8일, 우리 랑카팀의 부코디네이터 와루니 아파의 29번째 생일이었다. 미리 알았다면 선물과 함께 많은 것을 준비했겠지만, 당일 날 생일인 것을 알게 되어 급히 랑카의 빠바라고 할 수 있는 영클샘빵집에서 초콜릿케익을 사와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아미러 단원이 함께 하지 못해 아쉬웠다. 이 날 아미러 단원은 감기로 늦게 출근했다.



한국어교실, TOPIK시험 합격률 33% 달성



- 지난 10월 15일 고용허가제 한국 어능력시험인 TOPIK이 있었다. 현 코리안클래스 시험대비반 수업을 듣던 구레, 마누스, 수민이 시험을 봤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다음 주부터, 구레만이 코리안 클래스에 나오고 있다..... 수민은 소식도 알 수 없고 마누스는 아쉽게도 떨어졌다고.. 그러나 합격률은 33%다! 세명 중 한 명이니까^^...

보드멤버 참다못해 라온아미 단복 드라이 클리닝 안건으로 상정

- 출국 전 라온아미 6기 단원들은 라온아미 티셔츠를 두벌씩 받았다. 랑카팀 단원들은 9,10월에 몰린 페인트작업과 몸을 사리지 않는 열성 덕분에 2개월이 되지 않아 벌써 색이 바라고 몸이 더러워졌다. 매주 월요일에 있는 보드멤버와의 미팅에서 손빨래가 원칙인 랑카에서 드라이클리닝을 해주기로 그들끼리 전적으로 결정! 후문에 의하면 드라이클리닝 이후에도 별로 깨끗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오합지졸 캐롤 중창단 창설

- 기타를 칠 줄 아는 아미러 단원, 자기만의 음악세계를 가진 4명과 함께 이번 크리스마스에 캐롤 서비스를 하게 되었다. 캐롤은 상할라 1곡, 한국어 2곡, 영어 2곡으로 아직 연습조차 시작하지 않은 이 중창단의 미래가 걱정된다.

스리랑카 물가 폭등, 물품가격 20%이상 상승

- 10월 31일, 산유국이 아닌 랑카는 유가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당장 우리 랑카 단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플레인 하퍼의 가격이(10>12) 무려 20% 상승, 한국으로 보내는 우편 가격이 (45>60) 거의 40% 상승하였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가 왔다. 어느 나라든지 물가가 오르는 것은 참 빠르다.



랑카일보 10월 단신



스리랑카 가정 (니샤디) 집 방문
 - 10월 18일, 랑카6기는 처음으로 스리랑카의 가정집을 방문했다. Children's club의 멤버인 니샤디와 니부니의 어머니께서 집에 초대해 주었기 때문!(니샤디,니부니,남동생 모두 어머니의 얼굴을 쏙 빼닮았다.)도착하자마자 랑카6기는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다. 일단 풍수지리에 딱 떨어지는 넓게 펼쳐진 강물과 뒷산이 있고 집에는 엄청난 땀벌리(킹코코넛)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원없이 땀벌리를 순식간에 먹어 치우고는 어머니께서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샌드위치와 크로켓, 집에서 직접 딴 바나나도 먹었다.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원래 스리랑카는 손님을 초대하면 가족 것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모두 상을 내어 오기 때문에 초대할 주인물을 어느 정도 남겨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사랑스러운 니샤디 가족에게 무한 감사를 보낸다♥♥



스리랑카에서의 무사고 50일 자축 기념파티 열어

- 지난 10월 22일은 라온아띠 6기 스리랑카팀이 스리랑카에 온지 50일 째 되는 날이었다! 미리 버리고 별러 음식메뉴도 몇 번이나 고심하여 바꾼 끝에 텀리니의 요리할약으로 부침개, 빠리부, 소세지야채볶음, 어니언 샐러드, 카덜러를 준비하여 코디네이터인 아쇼커와 모라투와 Y의 사무총장인 싹뿔을 집으로 초대했다. 스리랑카의 생활에 관해, 문화에 관해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스리랑카에서의 50일밤을 훈훈하게 보냈다. 그러나 그날 찍은 사진은 지워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다.

깨알같은 사진으로 보는 10월 랑카 활동



여기는



스리랑카입니다



THIS IS

SRI LANKA

라온아띠 6기 보세요~

Happy Birthday!

- ◇ 생일 축하합니다!!! 밥 많이 많이 드세여 ㅠ.,ㅠ!!!!!!! -인중담
- ◇ 꿈꿔왔던 26세? 돌아가면 27세네요, 반올림 30!!! ㅋㅋㅋㅋ -요실금
- ◇ 밥은 먹고 다니냐? 살은 좀 쪼고? 귀국 댄 들이 되어오길^*^
-해변팬티
- ◇ 생일 축하합니다. 선물은 없어요. ㅋㅋ -북파공작원
- ◇ 줄리아 로버츠가 울고 갈 함박 웃음, 27세에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시길-메롱메롱 -칼도끼



- ◇ 생 축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북파공작원
- ◇ 생축생축!!!! 1월 안에 스리랑카 오면 맛있는거 사드립니다^^ㅋㅋ -인중담
- ◇ 옵하, 쌀국수 맛있어올? 저도 한입만올~ 기다릴게열! 생축생축!!! -요실금
- ◇ 베트남에서 연예인 대접 잘 받고 있는가? 베트남 사랑하는 만큼 팀원들 잘 챙기고, 귀국할 때 안주거리 좀 사와. -해변팬티
- ◇ 이민호가 아니라 축하할 마음이 영 안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축하해줄게요, 어이, 한 살 더 먹어서 좋겠어-칼도끼

라온아띠 6기 보세요~

Happy Birthday!



- ◇머리가 멋있으시네요. 앞으로도 부탁해요. -북파공작원
- ◇사진은 마음에 드세요? 제가 골랐어요*^^*생일 축하 드려요, 뽕암꿈에 새우 25마리 넣어 드셨기를-칼도끼
- ◇멋있는 자숙, 너가 가진 모든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내려놓고 오길! -해변팬티
- ◇태국말도 사투리 억양으로 하는 건 아니겠져ㅋㅋㅋ생일축하드려여^^!!! -인중땀
- ◇이제 머리좀 길었어요? 태국옷 멋져올!!-요실금

- ◇생일 축하합니다. 머리 끝내줘요. -북파공작원
- ◇HAPPY BIRTHDAY AND START NON SMOKEDAY 당신의 건강을 위해 ^-----^!!!! -인중땀
- ◇머리 예쁘게 잘랐네열, 원숭이 오빠 생축! -요실금
- ◇농구는 하고? 술은 적당히 마시고? 송님 말씀 잘 기억하며 살고, 여친 잘 잡아. -해변팬티
- ◇필리핀에서 인기 많으시다면서요, 저까지 축하할 필요 있겠어요? -칼도끼



라온아띠 6기 보세요~

Happy Birthday!

미리 생일 축하합니다. 열대과일 정말 맛있
겠네요. 부럽부럽 - 북파공작원
생일 축하해요, 필리핀에서 맞는 생일, 잊
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시길!- 칼도끼
아주그냥 사진 보니 물올랐구먼. 어떻게 사
는지 안부 전해주고 기타공연도 한번 해~~
필팁 전부 사랑한데잉 - 해변팬티
얘기를 많이 해 보지 못해 아쉽네...갔다와
서 많이 얘기해여 생축^__^!!!- 인증담
아띠6기 11월 유일한 생일자! 열매과일과 함
께하는 생일추카추카!!!- 요실금



벽화예고

랑카팀6기
벽화작업
네름지휘하에
매우빠르게
진행중



아미러의 시월 애(愛)세이

과연 전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과연 전 얼마나 많이 발전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전 그다지 변하지도 발전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발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고 발전하지 않는 것은 뒤쳐지는 것일까요?

두 달 남짓 지내오며 저는 제 안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행동이 느리고, 쉽게 지치고, 게으르기도 하고, 잠을 많이 자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삶을 떠나 스리랑카에서의 삶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나이자 '발견'이 있습니다.

제가 저이기를 부정하고 제가 제 자신이기를 포기했더니 또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결국은 '저' 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변하지도 발전하지도 않았지만 그 보다 더 소중한 스스로의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리더도 아니고, 인솔자도 아닙니다. 코디네이터도 아니고, 통역자도 아닙니다. 또한 능률한 예비역도 아니고, 든든한 복학생 훈남 오빠도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저는 그냥 다섯 명 중의 한 명의 팀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저의 자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게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주의로부터의 탈피

너 말은 틀렸어.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그건 절대 아니야.

저 역시도 이러한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세상에 과연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요?

물론 종교적인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과연 절대적인 것 일까요? 어쩌면 그것들은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지만 다른 누구 역시 저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순간순간 절대주의에 동화되고 이러한 다짐으로부터 무너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앞으로 석 달 남짓,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얼마나 절대주의로부터 탈피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WATCH' 해볼 생각입니다.

어느덧 10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100일 되는 10월 23일, 저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00일 동안 스스로에게 이것만은 지키자 라는 다짐입니다. 그것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주의로부터 탈피하기, 스리랑카의 삶에 최대한 집중해서 살기, 가져온 책 다 읽기, 기타 연습하고 연주하기, 출판사와 계약하기, 팀원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머리 스타일 바꾸기, 이선재 본부장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기, 송진호 실장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하기, 채식 위주로 식사하기, 남을 위해 돈을 쓰기,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손 편지 쓰기, 타인이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매일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다음달도
더 많이 사랑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 지고,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가끔 친구들한테서 온 연락을 받으면
모두들 바쁘게 살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나만 아무 대책 없이 낯선 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
적은 나이도 아닌데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고.

네 여행은 낭비가 아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그렇까?
하지만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야.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위로 높아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옆으로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마치 바다처럼.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中

아밀러 오혁준

10월은 나에게 '깨달음의 달'이었다.

나는 1년에 책 2권도 읽을까 말까 하고 신문이나 뉴스도 보지 않는 바보 멧구리였다. 이 곳에서 인터넷, TV, 그 속의 넘쳐나는 꼭 필요하지는 않은 연예인가십거리나 미용정보들에서 벗어나 책을 잡으니 세상에 정말 재미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책 읽는 것에 재미 들려 라온아띠 활동에 관심이 덜 간 것도 사실이다. 11월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거다^~ 2달 동안 읽은 책만 다섯 권이고 영화도 틈틈이 봤다. 생각이 많아졌고,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이던 생각들이 정리되었다. 지금은 권정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좋다. 내가 평소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깊고 자세하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과 관련되어서 나와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참 단순하다. 그래서 허무하다.

우리가 그토록 머리 싸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운 그 수많은 화학식과 영어단어와 고 난이도 수학 문제와 세계의 문화와 경제학과 같은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서로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떤 일이든 그것에 대한 깊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진정한 가치에 걸맞게 일이 진척이 되고, 그 결과 또한 모순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친구들은, 우리는 왜 배워야 했고, 배워야 하는가? 수많은 지식들을 왜 달달 외우고 문제를 맞춰야 했을까. 왜 그것을 이해도 하지 않고 글자로, 문제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여야 했을까. 일단 무조건 외우기 전에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그래야 진정한 목적의식이 생기고, 그 때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불필요하게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직장'을 얻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이란 어떤 것인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좋은 직장이란 몸이 고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편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리라.

별다른 수고로움 없이 무엇인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얻고 싶다는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낳은 것이다. 제국주의고 뭐고 다 근본은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다. 분명히 어릴 적 읽은 동화책에서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고 속이고 혼자서만 독차지하려는 욕심쟁이나, 편한 일만 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려는 개념 없는 게으름뱅이는 나중에 천벌을 받았는데 말이다.

이제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 되어버렸다.

중학교 때 다녔던 학원에서 한 선생님은 "솔직히 컨닝해도 된다. 대신 걸리지만 마라."고 했고 휴학기간 일자리를 알아보러 들린 한 영어 학원에서 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도 경쟁시키고 차등월급을 지급해서 일을 더 잘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선생님이 말한 '일을 더 잘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시험 성적을 더 잘 받게 한다는 것이리라.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직장을, 몸이 고되지 않고 편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리라.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성적을 잘 받아도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직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것으로 경쟁한다면, 과연 지식 외의 인성이나 생활 면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당시에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어서 찝찝하긴 해도 그럴 수도 있겠다 고개 끄덕이고 나왔는데, 지금 그 분을 만난다면 그래도 뭐라고 되받아 칠 수는 있을 것 같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막연하게 '좋은 직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잘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는 것일 텐데. 사람은 모두 다르니까.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고로움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것쯤 개의치 않고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찾아주지를 못하니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으로 그 만족감을 대체하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 예쁘고 좋은 옷, 다른 사람의 부러움, 예쁜 얼굴, 큰 집, 멋진 차 말고도 자신 내면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학교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정직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만큼 정당히 얻은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학교는 어떤가.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들의 배움터인 교대, 사대에서 과연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

나중에 보면 이걸 여기 왜 썼나 밤에 혼자 하이킥 찰 요즘 강가의 소소한 생각들

나 역시도 처음부터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침에 뜻이 있어서 교대에 간 것이 아니었다. 점수 맞춰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었다. 환경공학자라는 꿈은 그냥 내가 자연이 예뻐서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수학이나 과학 공부가 정말로 재미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보호가나 환경운동가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나도 편하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실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이들의 순수함이, 쑥쑥 자라는 모습이 예쁘고 좋았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졌다.

'좋은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찾고 있는 지금,

그 과정에서 이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고, 고맙다.

지금 내가 느끼는 많은 것들을

내 주위 사람들, 내가 만날 아이들과 얘기하고 서로 배우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 같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적당히 조심하면서 나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정치에나 환경에,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다.

그것을 따지느냐 안 따지느냐는 각 개인의 몫이다.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자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선 그것을 따지려면 그 책임을 알아야 한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만이라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냥 다 같이 예쁜 세상에서 오순도순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더 알고 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양보하고, 편한 것 조금만 참고, 생활
속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도.

뇌

구조테스트

우리의 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아요미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나는 왜 라온 아파에 지원했는가

오늘은 뭐먹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무루꾸, 마늘빵, 스트롱, 747, 스팀보트, 라즈베리잼, 하퍼명가, 오델주스, 카덜러, 끼리떼, 코코넛 쿠키, 빠리부

기우제
별빛달빛
에어로빅
별이 빛나는 밤에

에 뽀아~
까맛네헤~

단원 중 한명:
노약자 할아버지
요실금환자

루원디, 안젤리, 디미트리

구뚏발
엄청난 냄새의
스타킹옷
과장과 왜곡

루완시리즈

상식

여러분의 소정의 선물을 기다립니다.
사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Moratuwa YMCA 68, New Galle road, Moratuwa, Sri Lanka

월별보고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독자라면, 분명 보고서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품고 있으리라. 첫째, 분명 하나의 보고서인데 왜 페이지마다 디자인이 다를까? 둘, 충격적인 색의 조합은 누구로부터 생성된 것인가? 이외에도 많은 의문과 수상함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심의 눈초리 거두지 못했으리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애네 뭐야?'라는 욕하는 마음이 일었다면,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라. 고개 조아리고 기어들어가는 타자터치로 변명을 늘어놓아보겠다.

첫째, 페이지마다 디자인이 다른 이유는 다섯 명 모두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 명에게 일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팀은 컴퓨터 실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월별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물론 잘 하는 사람이 한 번에 작성을 하면 결과물이 더 보기 좋게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그렇게하기로 합의했다. 매달 우리는 잘하든 잘 못하든 서로 도와가며, 다섯 명의 손길이 합쳐진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작성한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페이지의 구성이나 색감이 달라진다. 색감과 공간 구성에 남다른 센스를 가진 몇몇 단원 때문에 보고서의 질이 하향평준화 돼버리는 부작용이 있기도 하나 그 또한 눈 꼭 감고 감내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팀이니까. 그러나 실감이는 끊이지 않는다.

둘, 충격적인 색의 조합과 새마을 운동 월간지에서나 봤을 법한 페이지 구성은 누구의 작품이었을까? 아, 우선 그 장본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단신의 글을 신문 느낌이 나도록 세로로 써야 한다며 본래 한국신문이 아직도 세로로 글이 쓰여져 나온다고 바둑바둑 우겼다. 팀 내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독립신문도 가로 쓰기였는데, 그는 도대체 몇 세기에서 왔을까? 색감은 또 어찌나 복고풍하고 고지식한지. 그에게 최고의 색의 조합은 신호등이다. 빨, 파, 노란색은 그에게 바이블과도 같다. 그대 자체가 신호등이 되고픈 마음에 사로잡혀 옷도 빨, 파, 노란색이 들어간 것만 입고, 그런 옷만 새로 구매한다. 이렇게 지조 있는 남자는 또 처음이다. 그대 이름 김성수. 그런데 신호등을 뒤엎는 미적 감각을 가진 강력한 존재가 이번 10월호를 작성하면서 나타났다. 그의 수정되지 않은, 온전히 그의 감각과 마우스로 만들어진 초안을 보면 그대도 아마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아벵 혹은 해변팬티로 불리는 그는 정말 천재이거나 천치다. 참고로 이번 호에 들어간 페이지는 초안에서 몇 회 수정된 안임을 알아챘으면 한다.

이런 천신만고(천 가지 매운 것과 만 가지 쓴 것이라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심하게 고생함을 이르는 것) 끝에 우리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음을 감안하여, 조금 과하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시라.

변의 - 앞에 언급된 김성수 단원과 해변팬티는 이번 달에도 다른 단원들의 매운 비평과 쓰디 쓴 비난을 받아가며 눈물의 수정을 감행해야만 했다. 거듭된 수정명령에 결국 이들은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갑자기 시크릿의 '별빛달빛' 동영상 틀어놓고 나란히 서서 온갖 귀여움을 총 동원하여 춤을 춰 보이는 망극을 저질렀다. 속소는 삽시간에 충격의 도가니가 되었다. 차마 그 현장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단원, 배가 터지도록 웃다가 자지러진 단원. 더럽다며 사색이 되어 그들을 제지시킨 단원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미적 감각만큼이나 리듬감, 눈썰미도 평균 이하였던 그들의 몸짓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안쓰러웠다. 그들의 아등바등은 그 후로도 한 동안 계속되었다.



아쇼커 아이야

강가(민정)

네롬(초록)

아밀러(혁준)

루완(성수)

와루니 아까

틸리니(가희)

※정답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한테는 수고했다고 말 하는 거 아니래요.
이상 무지 예의 바른 랑카팀이었습니다.